

전기차/배터리

독일 전기차 시장 역성장 모드로 테슬라의 판매 성장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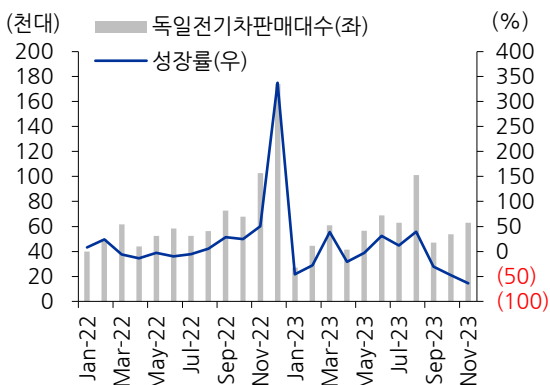
전기차 산업 포인트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독일과 테슬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독일은 올해 전기차 판매가 첫 역성장하고, 테슬라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하이 공장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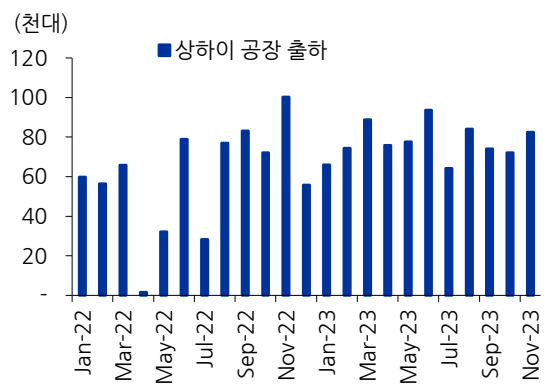
-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의 전기차 판매 11월 누적 62.7만대로 전년 대비 5% 감소, 연간 판매는 10% 감소 예상
- 보조금 축소에 이어 소비 둔화까지 겹쳐서 2024년 판매 회복 정체될 것, 저가 전기차 판매 결과 주목해야
-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출하 대수도 8월부터 정체되다가 11월에는 전년비 18% 감소
- 상하이 공장은 중국 내수뿐 아니라 수출 기지로 테슬라 글로벌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핵심 역할
- 신규 모델인 사이버 트럭은 대량 생산에 2년 정도 걸리고 기존 모델은 수요 둔화, 테슬라 성장 속도도 둔화 예상
- 수산화 리튬 가격. 고점인 8.1만달러/톤 기점으로 80% 이상 폭락해서 단기 반등 나오기 시작했으나, 전기차 성장 속도 올라가야 의미 있는 추세 반전 될 것. 2만달러 수준까지 반등한 뒤 횡보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업체들의 양극재 수출 단가도 하락 중이나, 직점 고점 5.3만달러/톤 대비 30% 하락(NCM 기준)에 불과해서 리튬 가격 반등세 나와도 내년까지 양극재 수출 단가는 하락세 지속 예상
- 감속 국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선거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 밸류에이션 부담 낮은 종목 위주의 매매가 바람직

독일의 월별 전기차 판매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테슬라 상하이 공장 출하 대수 추이



자료: Tesla, 유진투자증권

**독일 전기차 시장,
역성장으로 전환**

11월 누적 독일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62.7만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지난 해에는 연말을 기점으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보조금이 첫 축소되면서 11월, 12월에 각각 10만대, 17만대로 판매가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말 기준 기업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있었고, 올 12월 기점으로 40,000~65,000 유로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진다. 따라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보조금 축소 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독일의 11월 판매대수는 6.3만대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39% 급감했고, 12월에도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연간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약 -10% 수준으로 첫 역성장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축소 이외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 등이 겹치면서 독일 전기차 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2022년 기준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32%를 차지했다. 독일의 부진은 곧 유럽 전체로 연결된다.

테슬라도 정체 분위기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연간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중국 내수와 해외 수출을 위한 생산을 한다. 올 1~7월까지 이 공장의 누적 출하 대수는 54만대로 전년 대비 68% 급증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11월에는 18% 역성장을 기록했다. 모델 3의 페이스 리프트 라인으로 개조하기 위해 9월 생산 대수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후 2달 동안에도 의미 있는 출하대수 증가가 없는 것이다. 테슬라는 내년에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면 신차 모멘텀이 없다. 사이버 트럭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4년 테슬라의 성장 속도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이 공장이 이를 선행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평가 된 업체들 위주로
저점 매수 전략이 바람직**

올해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종목들 중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압도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80% 이상 급락하면서 양극재 단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추가 하락이 내년까지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고평가 상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시장의 감속뿐 아니라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의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차 시장에 부정적인 정치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더 감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높다. 다만, 눈 앞에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도표 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F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16	2,188	2,978	3,989	5,199	6,540	7,951	9,492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59	1,991	2,733	3,670	4,769	5,974	7,211	8,519
YoY(%)	51.2	58.8	36.5	37.2	34.3	30.0	25.3	20.7	18.1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6	10.3	13.6	18.1	23.6	29.8	36.2	42.4	48.7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57	197	245	320	430	566	740	972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23	10,565	12,536	14,509	16,585	18,645	20,392	21,852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119	10,060	11,900	13,707	15,564	17,342	18,703	19,633
YoY(%)	83.7	37.0	23.9	18.3	15.2	13.6	11.4	7.8	5.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7.6	33.2	38.1	42.6	47.0	50.8	53.2	54.2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40	765	920	1,094	1,297	1,536	1,849	2,259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128	3,634	4,230	4,846	5,531	6,312	7,173	8,125
YoY(%)	15.1	20.2	16.2	16.4	14.6	14.1	14.1	13.6	13.3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8	23.8	27.2	31.0	34.8	38.9	43.6	48.5	53.9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284	369	472	590	725	870	1,027	1,202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5,833	88,408	91,060	93,792	95,668	97,581	99,533	101,523
YoY(%)	(1.5)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551	16,757	20,216	23,934	28,041	32,368	36,544	40,671
YoY(%)	55.0	34.3	23.7	20.6	18.4	17.2	15.4	12.9	11.3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8	19.0	22.2	25.5	29.3	33.2	36.7	40.1

자료: Ev-Sal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3.09.30 기준)